

한국 고대 羅織물의 유형과 특성 II

- 석가탑 복장 羅織물을 중심으로 -

권영숙* · 장현주** · 이윙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기간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관리부 보존처리실 보존처리담당관***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Gauze Fabric of Ancient Korea II

- Focused on Gauze Fabrics Found at Sukga Pagoda -

Young-Suk Kwon* · Hyun-Joo Jang** · Yong-Hee Yi***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 Myoung Information University**

Conserv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2002. 10. 14 투고)

ABSTRACT

1. This study is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of gauze fabrics focused on the them found at Sukga Pagoda. The remains researched are those of the Unified Shilla Dynasty around 8~10 century. The found textile remains seem to be used as rugs or to be used for filling in spaces, wrapping silver reliquaries, equipments preserving relics of the Buddha, a gold-plated outermost reliquary, and so on. Since other remains found inside the Sukga Pagoda are national treasures, the textile remains can be considered as the fabrics of the highest quality.

2. Seven gauze fabrics, four non-designed gauzes and three designed gauzes, are found. They are all four-end complex gauze, weaved with the complex gauze technique. Two designed gauzes out of three designed gauzes are weaved in pattern by the clamp-resist dyeing technique and one is weaved in pattern by giving some changes in weaving.

3. In addition to the characteristics peculiar to gauze fabrics, such as thinness, fineness, and sparseness, another characteristic is found. That is, the difference in thickness between wefts and warps is over two times on the average in all of the seven gauze fabrics. Some of the gauze fabrics look like laces because of the huge difference in their thickness.

4. This research verified that with their transparency, are such materials that their beauty can easily be realized without adding various colors or patterns on the fabric by painting, embroidery, stitching old foil, or compound weaving technique.

Key Words: 4-end complex gauze(4경교라), Non-designed gauze(무문라), designed gauze(문라), complex gauze(복합의경법), Clamp-resist dyeing(협힐염), compound weaving(중조직기법)

I. 서 언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인 '한국 고대 羅織물의 유형과 특성'¹⁾에 이어서 석가탑에 복장된 직물 중 羅織물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조사한 유물은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에 소재하는 불국사의 대웅전 앞뜰 서쪽에 있는 삼층석탑(석가탑)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8~10세기경의 통일신라시대의 것이다. 1966년 10월 탑을 수리할 당시 2층 탑신에서 동경, 옥류, 은제 사리합, 사리 장엄구 금동외함 등과 함께 발견되었으며 이 유물들은 현재 국보 제 126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직물 유물은 은제 사리합 및 사리 장엄구 금동외함 등을 싸는 보자기, 깔개 및 보공품으로 사용한 것이며 이 유물들이 국보급인 만큼 석가탑 내에서 발견된 직물 또한 그 시대의 최고급 직물이라 생각된다. 직물은 羅織물 외에 평직물, 능직물도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羅織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가볍고 얇으며 조직이 성근 독특한 질감을 가진 羅織물은 귀족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의료로서 고대부터 널리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석가탑 내에서 발견된 羅織물은 8~10세기의 유물로 국내에서 발견된 羅織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이 시대 최상의 고급 직물로 여겨지므로 최고의 신분이 사용했던 고대 羅織물의 특성을 상세히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고대 羅織물의 유형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실증고찰을 통해 석가탑 내에서 발견된 羅織물의 특성을 고찰하고

출처가 다른 동 시대 및 인접 시대의 羅織물의 특성과 비교하여 통일신라시대의 羅織물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II. 고대 羅織물의 유형 분류

羅는 마치 그물처럼 경사 가닥이 서로 얽혀서 조직된 絞經조직이며 매우 얇은 투공 견직물이다. 이것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사용했으며 대체로 상류계급의 고급 의료로 널리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 연구에서 이미 羅織물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여 먼저 기본 조직의 경사 가닥수에 따라 2經絞羅, 3經絞羅, 4經絞羅로 분류하였으며 무늬의 유무에 따라 紋羅, 無紋羅, 그리고 섬세도 및 생산 지역의 명칭 등에 따라 분류하였다.²⁾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에서 羅織물을 분류하는 기준 및 그 정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언급한 조직, 무늬의 유무 및 표현방법, 섬세도, 지역 명칭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도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1> 한국의 羅織을 분류기준 및 그 정의

| No | 분류기준 | 분류 | 정 의 | |
|-----------------------|----------------------------|-------------------------------------|--|--|
| 1 | 조직특성 I ³⁾ | 2經絞羅 | 無紋紗 | 2가닥의 경사가 1조가 되어 서로 얽혀서 조직 →오늘날의 紗織과 같으며 대체적으로 紗라고 명명<그림 1~2> |
| | | | 紋紗 | 2가닥의 경사가 1조가 되어 서로 얽혀서 조직 →일정 부위에서는 꼬이지 않고 평직, 능직 등의 보통 조직으로 짜여져 문양을 표현<그림 3~4> |
| | | 3經絞羅 | 無紋羅 | 3가닥의 경사가 1조가 되어 서로 얽혀서 조직 →2올은 地經, 1올은 擲經으로 합쳐져 2올의 地經이 1올의 擲經하고 꼬이면서 제직<그림 5~6> |
| | | | 紋羅 | 3가닥의 경사가 1조가 되어 서로 얽혀서 조직→일정 부위에서는 꼬이지 않고 평직, 능직 등의 보통 조직으로 짜여져 문양을 표현<그림 7~8> |
| | 4經絞羅 | 無紋羅 | 4가닥의 경사가 1조가 되어 서로 얽혀서 조직<그림 9~10> | |
| | | 紋羅 | 4가닥의 경사가 1조가 되어 서로 얽혀서 조직→바탕은 4經1組의 羅조직, 무늬는 2經一組의 羅조직인데 이때 2經1組의 羅조직은 紗와 다르며 擲經이 좌측 地經과 1회, 우측 地經과 1회 網狀으로 꼬이는 것<그림 11> | |
| 조직특성 II ⁴⁾ | 單純擲經法 | 2~3올의 경사를 1조로 하여 서로 교차되게 제직<그림 1~8> | | |
| | 複合擲經法 | 2~4올의 경사가 좌우 연속적으로 교차되게 제직<그림 9~11> | | |
| 2 | 무늬有無 및 표현 방법 ⁵⁾ | 紋羅 | 表紋羅 | 紋羅의 유형 중 문양이 겉으로 확실히 도드라져 보이도록 하기 위해 바탕을 제직한 후 자수 및 염색 등의 방법을 통해서 문양을 뚜렷하게 표현한 직물→자수(繡羅), 점모직(點羅), 염색(金箔羅, 縵紋羅), 중조직(織金羅) 등을 이용하여 문양을 표현 |
| | | | 地紋羅 | 바탕과 무늬부분을 같은 실로 제직하되 바탕조직과 무늬조직의 제직방법을 달리해서 문양을 표현한 羅직물. 은은하고 고상한 느낌 |
| | 無紋羅 | 무늬가 없는 羅 | | |
| 3 | 섬세도 ⁶⁾ (소재) | 昇天羅 | 매우 가볍고 섬세한 羅 | |
| | | 總羅 | 소재가 마이며 올이 가늘고 성기게 짠 것 | |
| | | 布紡羅 | 總羅 보다 좀 더 성긴 것 | |
| 4 | 지역명칭 | 안주항라 | 안주지역에서 생산되는 羅 | |

<표 2> 중국의 羅織을 분류기준 및 그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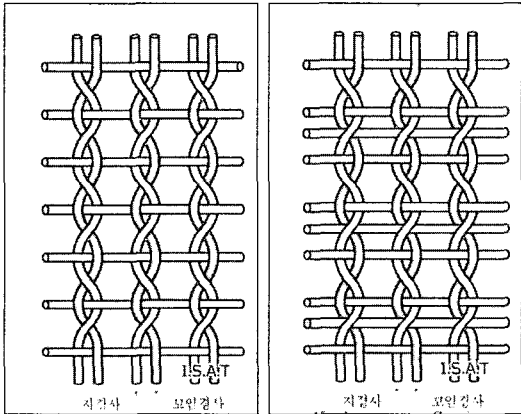
| No | 분류기준 | 분류 | 정 의 |
|-------|-----------------------|---|-------------------------------------|
| 1 | 조직특성 I ⁷⁾ | 2經絞羅 | 2가닥의 경사가 서로 얽혀서 조직<그림 1~4> |
| | | 3經絞羅 | 3가닥의 경사가 서로 얽혀서 조직<그림 5~8> |
| | | 4經絞羅 | 4가닥의 경사가 서로 얽혀서 조직<그림 9~11> |
| | 조직특성 II ⁸⁾ | 簡單絞經羅 | 絞經과 地經이 일정하게 배합되어 교전이 진행된 것<그림 1~8> |
| 複雜絞經羅 | | 絞經과 地經 사이에 일정한 관계없이 직조된 경우이며 無固定組羅, 鏡式羅, 通絞羅 등으로 불림 2經通絞羅, 4經通絞羅의 종류가 있다. <그림 9~11> | |
| 2 | 무늬有無 ⁹⁾ | 素羅 | 무늬가 없는 無紋羅직물 |
| | | 花羅 | 무늬가 있는 紋羅직물(暗花羅 등). |

| | | | |
|---|-----------------------------|-----|---|
| 3 | 물리적 특성 ¹⁰⁾ | 馬尾羅 | 지질이 거칠고 성기다. 사대부와 서민의 편복에 사용 |
| | | 亮羅 | 가볍고 얇고 투명하다. 방열, 투기 등의 장점이 있어 두건, 여름의복에 사용 |
| | | 芝麻羅 | 지질이 성기고 거칠다. 서민 병사의 두식에 사용 |
| | | 研羅 | 광채를 내는 발광직물. 광채를 평평하게 갈아서 만든 것. 부녀자, 무녀, 악녀의 드레스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 |
| | | 春羅 | 두껍고 충만하고 공간이 있다. 봄 홉옷, 적삼 등에 사용 특히 恒州지역에서 많이 생산 |
| | | 結羅 | 지질이 두껍고 충만하다. 사대부와 서민의 편복에 사용 특히 南宋 臨安(지금의 杭州)에서 생산 |
| | | 軟烟羅 | 투명하고 색과 광택이 연하고 부드러워 멀리 바라보면 마치 연기와 같다. |
| | | 水緯羅 | 그물구멍이 뚜렷하다. 그물구멍이 가로방향으로 만곡되어 水紋과 같다. 특히 蘇吳 지역에서 생산 |
| | | 蟬翼羅 | 지질이 청명하다. 두건에 사용 |
| | | 透額羅 | 투명하고 가볍고 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흑색으로 염색하여 두건에 많이 사용. 江南 蘇吳지역이 주산지 |
| 4 | 생산지 ¹¹⁾ | 杭羅 | 浙江杭州 지역생산품. 사대부와 서민의 편복에 사용 |
| | | 松羅 | 송강지구 생산품. 사대부와 서민의 편복에 사용 |
| | | 越羅 | 越지역 생산품. 가볍고 얇으며 부녀의 드레스에 사용 |
| | | 湖羅 | 湖州지역 생산품. 두껍고 충만하며 색이 선명하고 광택이 난다. 여성의 정장에 사용 |
| | | 番羅 | 汎指 서역지역 생산품 |
| 5 | 소재의 생, 숙의 차이 ¹²⁾ | 生羅 | 생사로 제직. 부드럽고 맑은 느낌, 흡습성 강함 |
| | | 熟羅 | 숙사로 제직, 방직전 생사를 먼저 삶아서 고무질을 뽑아내어 유연하게 한 것으로 生羅보다 가격이 비싸다. 귀족남녀의 홉옷, 바지, 치마 등의 재료 |

<표 3> 일본의 羅직물 분류기준 및 그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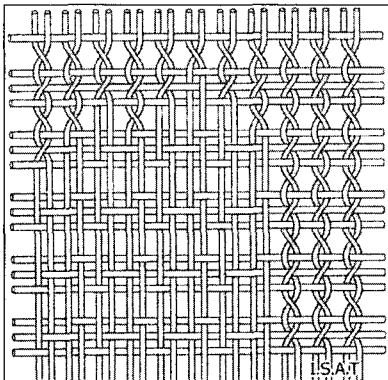
| No | 분류기준 | 분류 | 정 의 |
|----|---------------------|-------|--|
| 1 | 조직특성 | 2經絞羅 | 일반적으로 좌우의 경사가 서로 교차된 것은 紗로 분류 |
| | | 3經絞羅 | 3가닥의 경사가 서로 얹혀서 조직 |
| | | 4經絞羅 | 4가닥의 경사가 서로 얹혀서 조직 |
| 2 | 외관특성 ¹³⁾ | 網緞 | 새의 그물에서 암시를 얻어 고안된 조직 羅의 가장 기본 조직 경사 2가닥, 위사 2가닥이 기본조직 단위<그림 10> |
| | | 籠緞 | 網緞보다 한차원 높은 여조직 직물 경사 4가닥, 위사 4가닥이 기본조직 단위<그림 9> |
| | | (複)兩緞 | 網緞와 籠緞조직을 혼합한 조직 籠緞조직을 바탕으로 하고 網緞조직으로 문양으로 짜는 것이 일반적→紋羅(그림 11) |
| 3 | 무늬有無 | 有紋羅 | 무늬가 있는 羅직물 |
| | | 無紋羅 | 무늬가 없는 羅직물 |

다음 <그림 1>~<그림 11>은 앞서 설명한 羅
직물의 조직을 이해하기 쉽게 조직도로 그려본 것
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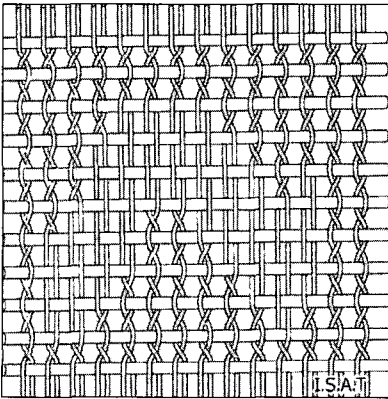


<그림 1> 2경교라①
(無紋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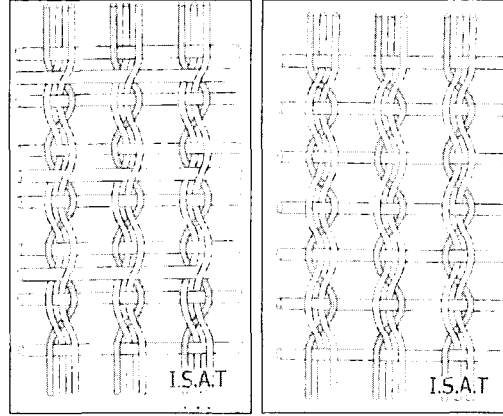
<그림 2> 2경교라②
(無紋紗)



<그림 3> 2경교라 ③ (紋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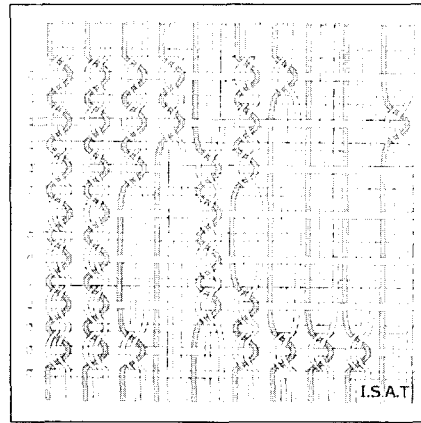


<그림 4> 2경교라 ④ (紋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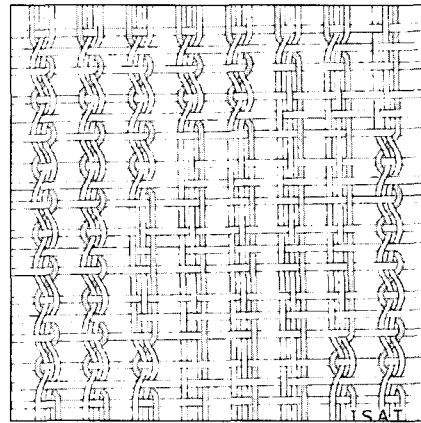


<그림 5> 3경교라 ①
(無紋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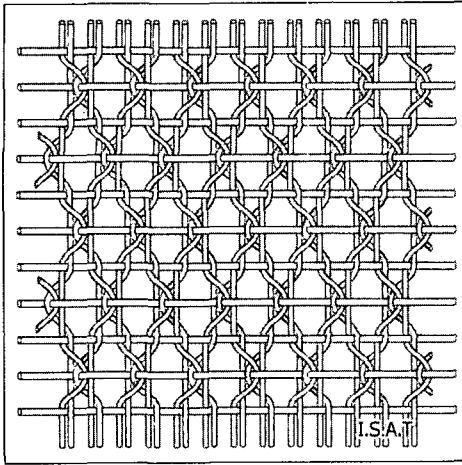
<그림 6> 3경교라 ②
(無紋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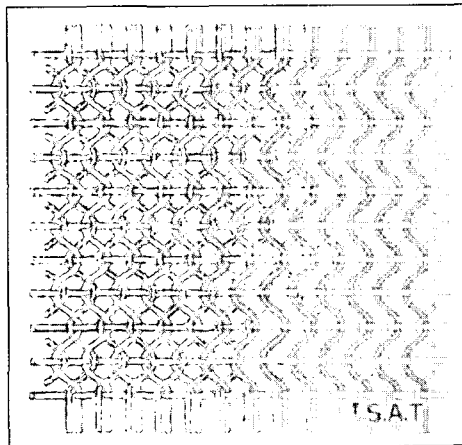
<그림 7> 3경교라 ③ (紋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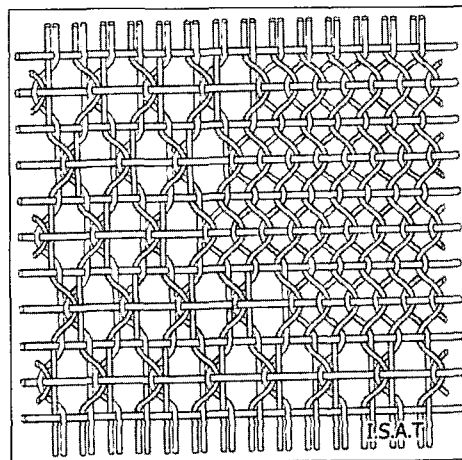
<그림 8> 3경교라 ④ (紋羅)



<그림 9> 4경교라 ① (無紋羅)



<그림 10> 4경교라 ② (無紋羅)



<그림 11> 4경교라 ③ (紋羅)

이상의 <표 1>~<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羅織物の 분류기준은 기본조직, 외관특성, 무늬의 유무, 무늬의 표현방법, 생산지역, 물리적 특성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羅織物은 기본 조직의 경사 가닥수에 따라 2經紋羅, 3經紋羅, 4經紋羅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의 경우는 이것을 다시 1조를 이루는 경사끼리 단순히 교차했느냐, 복잡하게 경사가 좌우 연속적으로 교차되어 제작되었느냐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직물의 외관에 따라 새의 그물조직에서 고안된 비교적 간단한 網紹조직과 더욱 복잡하게 얽힌 籠紹조직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에도 무늬의 有無에 따라 紋羅(有紋羅, 花羅)와 無紋羅(素羅)로 구별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생산지의 이름을 따서 羅織物에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羅織物의 다른 직물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외에도 소재, 生熟의 차이 및 섬세도에 따라 이름을 붙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석가탑 복장 羅織물의 특성

석가탑에 복장된 羅織物 7점은 모두 4經紋羅조직이며 복잡하게 紋經된 직물이었다. 4經紋羅 직물의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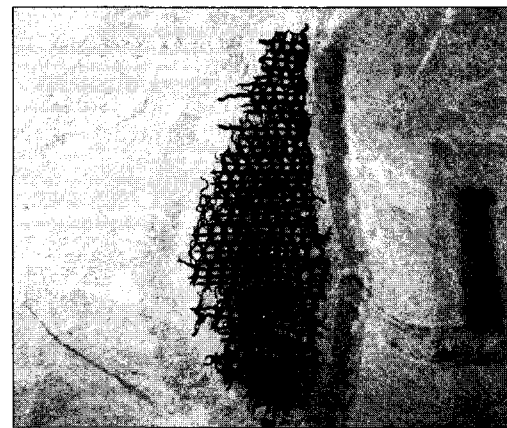
총 7점의 羅織物은 紋羅 3점, 無紋羅 4점이다. 3점의 紋羅織物 중 2점은 염색에 의해 문양을 표현한 것이고 또 1점은 조직의 변화에 따라 문양을 표현한 것이다. 4經紋羅 7점은 모두 複合撈經法의 4經紋羅 조직 즉 籠紹조직을 기본조직으로 제작되었으며 <그림 9> 경, 위사 굵기 차이 및 밀도 등에 따라 재질에서 다소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 중 紋羅織物인 유물번호 6-4-2<그림 12~13> 얼핏 보아서는 무늬가 없는 無紋羅織物인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경사 4가닥이 복잡하게 얽혀 조직된 籠紹조직<그림 9>과 이 때 사용된 4가닥이 다시 2가닥씩 나뉘어져 오늘날 사직과 같은 조직<그림 1>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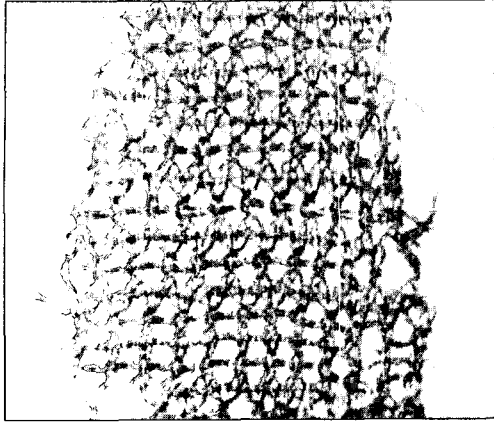
<표 4> 석가탑 羅織물의 특성

| 번호 | | 3-1 | 3-2 (6-6) | 3-3 (6-2-2) | 3-5 | 4-1 | 5-2 | 6-4-2 |
|--|----|-------------------------------|---------------------------------|----------------|-------|--------|-------|-------------|
| 직물명 | | 紋羅 | 紋羅 | 無紋羅 | 無紋羅 | 無紋羅 | 無紋羅 | 紋羅 |
| 조 직 | 바탕 | 4경교라 | 4경교라 | 4경교라 | 4경교라 | 4경교라 | 4경교라 | 4경교라 |
| | 무늬 | 협힐염 | 협힐염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2경교라 |
| 실굵기 (mm) | 경사 | 0.115 | 0.138 | 0.083 | 0.113 | 0.075 | 0.115 | 0.077 |
| | 위사 | 0.345 | 0.203 | 0.108 | 0.294 | 0.155 | 0.288 | 0.154 |
| 굵기비 ($\frac{\text{위사굵기}}{\text{경사굵기}}$) | | 3 | 1.47 | 1.30 | 2.60 | 2.07 | 2.5 | 2 |
| 실련수 (D) | 경사 | 83.83 | 120.7 | 43.67 | 80.94 | 35.66 | 83.83 | 37.58 |
| | 위사 | 754.5 | 261.2 | 73.94 | 547.9 | 152.29 | 241.1 | 150.32 |
| 실꼬임 | 경사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 위사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밀 도 (가닥수 / inch) | 경사 | 121.9 | 124.5 | 155.4 | 195.1 | 142.2 | 192 | 121.9 |
| | 위사 | 40.6 | 39.4 | 45.7 | 48.8 | 40.6 | 50.8 | 40.6 |
| 밀도비 ($\frac{\text{경사밀도}}{\text{위사밀도}}$) | | 3.00 | 3.16 | 3.40 | 3.40 | 3.50 | 3.78 | 3.00 |
| 직물의 C·F | | 30.63 | 27.48 | 19.48 | 39.78 | 18.52 | 34.93 | 17.09 |
| 두께 (mm) | | 0.460 | 0.341 | 0.191 | 0.407 | 0.23 | 0.31 | 0.231 |
| 크기(cm×cm) | | 3×84 | 4×83 | . | . | . | 17×15 | 1×2.7 |
| 용도 | | 직사각형 帶 | 직사각형 片 | . | . | . | 주머니 | 직물조각 |
| 문양 | | 있음 (협힐염- 힐문간격7 -8cm) | 있음 (협힐염- 힐문간격 15-20cm)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있음 (능형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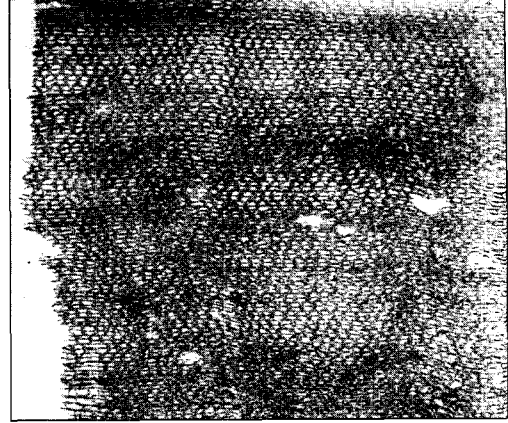
에는 羅織물의 대표적인 문양인 능형문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살펴본 조직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 그 조직도를 그려본 것이 <그림 14>이다. 일반적으로 4경교라 조직의 문라직물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탕은 4경 1조의 羅조직이고 무늬는 2경 1조의 羅조직으로 이때의 2경 1조의 羅조직은 紗와는 다르며 익경이 좌측의 지경과 1회, 우측 지경과 1회 網狀으로 꼬이는 것이며 일본에서는 북양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본 유물에서는 무늬부분의 조직이 오늘날의 사직처럼 되어 있어 기존의 조직 특성과는 분명히 다르므로 고대 羅織물의 조직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직물의 가로×세로의 크기가 1×2.7cm 가량밖에 안되어서 그 정확한 문양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지만 8~10세기 신라시대 전통 羅織물의 정교한 제직기술을 엿볼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임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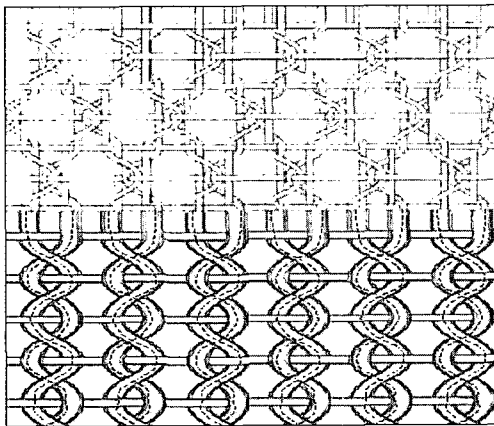
<그림 12> 유물번호 6-4-2 紋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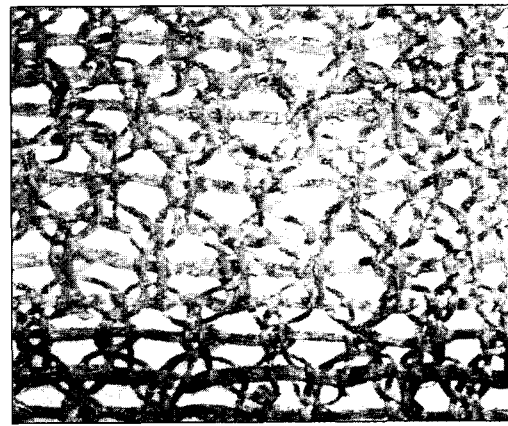
<그림 13> 유물번호 6-4-2 紋羅조직



<그림 15> 유물번호 3-2 夾織紋羅



<그림 14> 유물번호 6-4-2 紋羅조직도



<그림 16> 유물번호 3-2 夾織紋羅조직

그리고 또 2점의 紋羅직물인 유물번호 3-1, 3-2는 複合撈經法의 4經紋羅 조직 중 籠縐조직<그림 9>으로 제직한 후 협힐염이라는 2차 가공방법을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한 듯하다. 유물번호 3-1은 힐문간격이 7~8cm, 유물번호 3-2(6-6)는 힐문간격이 15~20cm로서 波狀문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16>.

협힐염으로 문양을 표현한 夾織紋羅 중 유물번호 3-1은 3×84cm의 직사각형의 帶로 사용된 것이며 문양의 간격이 7~8cm으로 끝마무리는 사각 모서리를 접어 넣어 처리했다. 특히 이 유물은 위사가 경사에 비해 3배 정도로 훨씬 굵어 마치 레이스와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유물번호 3-2의 것도 마찬가지로 4×83cm의 직사각형 조각으로 경, 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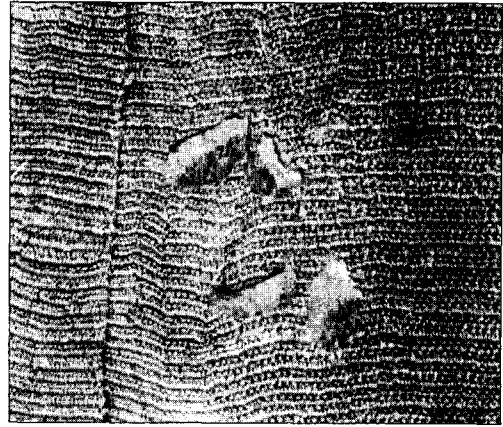
굵기 차이가 1.5배 정도 되며 외관이 마치 레이스와 같은 느낌이었다. 이러한 羅직물의 특징은 경, 위사의 굵기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다른 시기의 羅직물과는 엄연히 다른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羅직물 7점의 경사 굵기는 0.075~0.138mm(평균:0.102mm), 위사 굵기는 0.108~0.345mm(평균:0.208mm)이다. 그리고 경·위사 굵기비는 1.30~3.0(평균:2.02)이므로 경사의 굵기에 비해 위사가 평균 2배 정도 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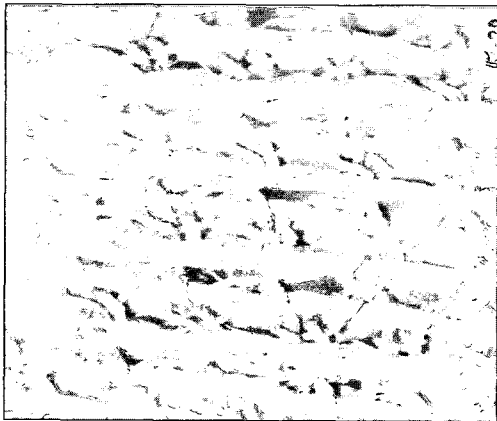
모든 4經紋羅 직물의 경사밀도는 121.9~195.1/inch(평균:150.4/inch), 위사밀도는 39.4~50.8/inch(평균:43.8/inch)이다. 그리고 경·위사 밀도비는 3.00~3.78(평균:3.32)로서 경, 위사의 비가 평균 3.3 배임을 알 수 있다. 7점의 직물 모두 4經紋羅직물

이므로 평균 37.6개의 紋經단위가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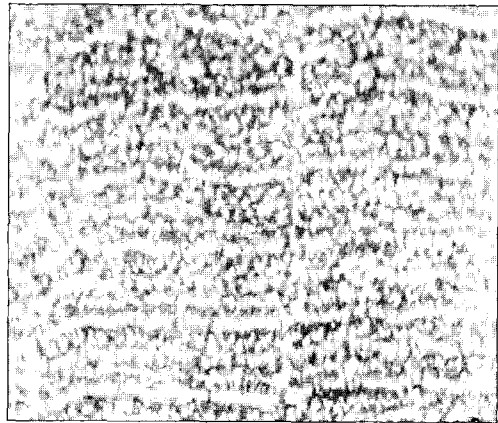
특히 유물번호 3-1, 3-5, 5-2는 경사에 비해 위사의 굵기가 2.5배 이상으로 굵어 겉에서 보아 마치 레이스와 같은 느낌이였다<그림 17~그림 20>. 그 조직은 모두 4경교라 조직 중 룡려 조직을 기본 조직으로 하여 제작되었으며(그림 9) 특히 유물번호 3-5와 유물번호 5-2는 경, 위사의 밀도가 각각 195.1×48.8/inch, 192×50.8/inch, 경, 위사의 밀도차이가 각각 3.4, 3.78로서 7점의 4經紋羅 직물 중 경, 위사의 밀도도 가장 크며 조직이 매우 치밀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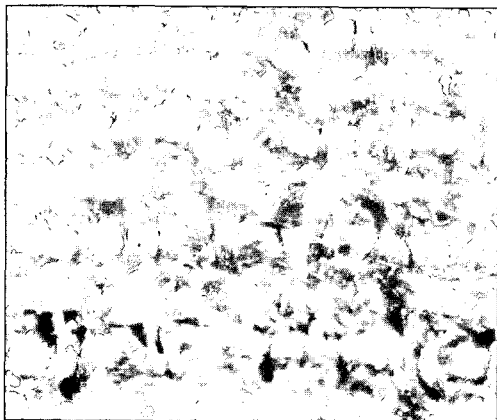
<그림 19> 유물번호 5-2 無紋羅



<그림 17> 유물번호 3-1 無紋羅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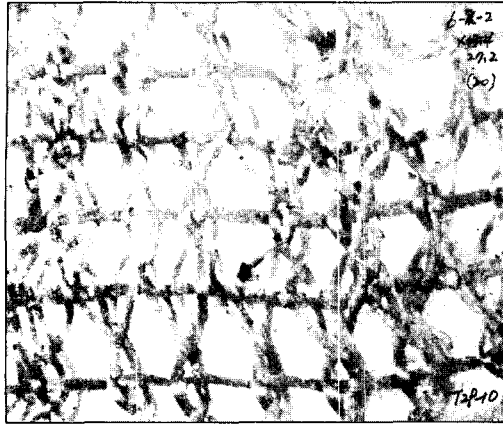
<그림 20> 유물번호 5-2 無紋羅조직



<그림 18> 유물번호 3-5 無紋羅 조직



<그림 21> 유물번호 3-3 無紋羅



<그림 22> 유물번호 3-3 無紋羅 조직

그리고 위의 특성과는 달리 유물번호 3-3, 4-1, 6-4-2는 경, 위사가 매우 가늘고 두께도 매우 얇고 투공성이 뛰어난 유물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羅織물 고유의 특성을 볼 수 있었다<그림 21~22>. 이 3점의 Cover Factor도 17.09~19.48로서 매우 성긴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석가탑 복장 羅織물을 이와 유사한 시기의 유물과 그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에서 발견된 향낭의 소재인 繡羅織물의 바탕직물로 사용된 4經紋羅織물은 경, 위사 밀도가 165×43/in, 경위사 밀도비는 3.84로서 석가탑직물과 특성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¹⁵⁾

그리고 1302년 아미타불 복장유물¹⁶⁾에서 나온 4經紋羅 조직의 無紋羅 직물 13점의 경, 위사밀도는 71.1~203.2×15.2~63.5/inch(평균:127.4×37.5/inch)이며 밀도비는 3.4로서 석가탑 羅織물과 비교하여 밀도는 비교적 작지만 밀도비는 대체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14C 고려후기의 문수사 복장직물¹⁷⁾에서 나온 4經紋羅 조직의 無紋羅의 경,위사 밀도는 168×26/inch(경,위사 밀도비:6.46)인데 이것과 비교하면 경사의 밀도는 통일신라시대 석가탑 羅織물과 거의 유사하지만 위사의 밀도는 훨씬 작다. 그리고 여기에는 밀도가 매우 치밀한 紋羅織물이 1점 있었는데 경, 위사 밀도가 224×48/inch(경,위사 밀도비:4.67)로서 매우 치밀한 조직도 있었다.

조선초기의 유물로 알려진 저고리 고름에 사용

된 無紋羅 직물의 경, 위사 밀도는 128×56/inch, 밀도비는 2.29로서 석가탑 羅織물과 그 범위가 비슷하다.¹⁸⁾

일반적으로 羅織물은 제직 방법이 대단히 복잡하므로 제직 기법 상 매우 큰 문양을 표현할 수 없으며 화려하고 큰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제직 후 염색, 금박, 직금, 자수 등의 2차 가공을 실시하게 되는데 석가탑 유물 중에는 염색의 2차 가공을 실시한 羅織물이 2점 있었다. 그리고 가장 초기 조직인 4經紋羅織물로서 4가닥의 경사가 서로 紋經된 羅조직 중에서도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 4經紋羅조직의 변화조직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 언

1. 한국, 중국, 일본에서 라직물은 기본조직, 외관특성, 무늬의 유무, 무늬의 표현방법, 생산지역, 물리적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기본조직의 경사가닥수에 따라 2經紋羅, 3經紋羅, 4經紋羅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것을 다시 1조를 이루는 경사끼리 단순히 교차했느냐, 복잡하게 경사가 좌우 연속적으로 교차되어 제직되었느냐에 따라 분류하였다. 일본에서는 직물의 외관에 따라 새의 그물조직에서 고안된 網縵조직과 더욱 복잡하게 얽힌 籠縵조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무늬의 有無에 따라 紋羅(有紋羅, 花羅)와 無紋羅(素羅)로 구별하고 그 무늬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다시 表紋羅와 地紋羅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생산지의 이름을 따서 羅織물에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에도 소재, 生熟의 차이 및 섬세도에 따라 이름을 붙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8~10세기의 유물로 추정되는 석가탑 내에서 발견된 羅織물 7점은 무늬가 없는 無紋羅 직물 4점, 紋羅 직물 3점으로 모두 복잡하게 얽혀서 조직된 복합 4經紋羅조직이었다. 3점의 紋羅 직물 중 2점은 협힐염으로 문양을 표현했으며 1점

은 4經絞羅조직에 변화를 주어 문양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羅織물 고유의 특징인 얇고 고우며 성긴 특성을 지닌 유물 외에도 경, 위사 굵기가 2.5배 이상 경, 위사 밀도가 3.5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조직이 매우 치밀하고 두터워 마치 레이스와 같은 외관을 나타낸 유물도 있었다.

3. 羅織물의 제작방법의 특성상 제작 후 인염, 자수, 금박, 중조직 기법 등의 2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채와 문양을 가진 화려한 직물이 되지 않아도 羅織물은 고유의 자체 문양인 투공성에서 풍기는 은은한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소재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4. 본 연구는 고대 최고의 신분이 사용하였던 의복 소재의 한 종류인 라직물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한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라직물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고찰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자수, 금박, 중조직 기법 등을 사용한 다양한 羅織물의 유형은 접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羅織물의 전반적인 특성 고찰은 부족한 점이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제작한 방법(중국에서는 암화기법이라고 함)이다. 여기에 적합한 용어를 문헌에서 찾을 수 없어 저자는 전자를 表紋羅, 후자를 地紋羅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 6) 권영숙·신경철·장현주 (2001). 위의 논문. p. 29.
- 7) 高漢玉 (1996). 中國歷代織染繡圖錄. 商務印書館香港分館/上海科學技術出版社 合作, p. 242.
- 8) 趙豐 (1999). 織繡珍品. 香港: 芝紗堂/服飾出版, pp. 335-336.
- 9) 周凡, 高春明 編著 (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p. 491.
- 10) 위의 책. pp. 492-493.
- 11) 위의 책. pp. 492-493.
- 12) 위의 책. p. 492.
- 13) 川島織物研究所 (1960). 羅技私考. 川島織物研究報告 제4호, pp. 1-4, pp. 29-34.
- 14) 심연옥 (2002). 앞의 책, pp. 156-207에서 발췌하여 실었음.
- 15) 권영숙 (2000). 月精寺八角九層石塔發見繡羅香盒囊小考. 월정사 정보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16) 김미자, 조효숙 (1991). 1302년 阿彌陀佛腹藏物의 조사연구. 온양: 민속박물관, p. 121.
- 17) 권영숙, 장현주 (2001). 文殊寺 腹藏織物에 관한 小考. 복식, 51(6). p. 110.
- 18) 장현주 (1999). 조선시대 견직물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04.

참고문헌

- 1) 권영숙·신경철·장현주 (2001). 한국 고대 羅織물의 유형과 특성 -홍덕왕 복식금제에 나타난 羅織물을 중심으로-. 복식, 51(1).
- 2) 위의 논문, p. 77.
- 3) 심연옥 (2002). 한국직물오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소. pp. 157-207.
- 권영숙·신경철·장현주 (2001). 앞의 논문, p. 77.
- 4) 김용문, 조효숙 (2000). 실크로드 3000년전 -신강의 고대 직물 문화-. 온양: 민속박물관, p. 260.
- 5) 무늬의 有無에 따라 중국에서는 素羅, 花羅, 일본에서는 有紋羅, 無紋羅라고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紋羅, 無紋羅의 명칭으로 구분하는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羅織물에 무늬를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문양이 걸로 확실히 도드라져 보이도록 하기 위해 바탕을 제작한 후 제2차적인 방법으로 문양을 표현한 방법(중국에서는 장화기법이라고 함)과 바탕과 무늬부분을 같은 실로 제작되 문양부분을 다른 조직으로